

#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復刻

Reprinting of the Jiaxing Tripitaka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이 종 수 (Lee, Jong-Su)\*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3 안변 석왕사와 안동 봉정사 |
| 2. 가흥장의 유입              | 4. 맺음말             |
| 3. 가흥장의 복각 주체           | <참고문헌>             |
| 3.1 낙안 징광사와 담양 용흥사      |                    |
| 3.2 지리산 쌍계사·왕산사·<br>화엄사 |                    |

## <초 록>

1681년 6월, 일본으로 가던 중국 상선이 태풍을 만나 전라도 葦子島에 표착하였다. 그 배에는 명나라 말기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 간행된 嘉興大藏經이 가득 실려 있었다. 표류선에 실려 있던 佛書 1천여 권과 여러 물품들은 羅州 관아에서 수습하여 왕실로 보냈지만, 인근 해안가에 흩어져 있던 佛書 木函들은 근처 승려들이 수습하고 그 일부는 복각하였다.

당시 가흥대장경을 수집했던 栢庵性聰은 1686~1700년에 7종 154권을 복각하여 樂安 澄光寺에 목판을 보관하였고, 桂坡性能은 1695년에 지리산 雙溪寺에서 1종 40권을 복각하였다. 또한 담양 龍興寺에서는 1694년에 1종 2권, 지리산 王山寺에서는 1713~14년에 2종 2권, 지리산 華嚴寺에서는 1724년에 3종 7권, 安邊 釋王寺에서는 涵月海源이 주도하여 1750년에 2종 3권, 安東 鳳停寺에서는 1769년에 3종 34권의 가흥대장경을 복각하였다.

要語: 嘉興大藏經, 佛書, 寺刹板, 復刻, 栢庵性聰, 涵月海源, 鳳停寺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su5589@hanmail.net)

접수일: 2013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In June 1681, a Chinese merchant ship was cast away on the coast of Imja Island in Jeolla Province. The ship was fully loaded up with imprints of the Jiaxing Tripitaka published over one hundred years since the end of the Ming dynasty. More than a thousand Buddhist scriptures and other artifacts were collected by the government office of Naju and, eventually, sent to the royal court of Joseon. However, local monks collected Buddhist scriptures in wooden containers scattered on the shore. More importantly, they selected some texts included in the Jiaxing Tripitaka and had them reprinted.

The monk Baegam Seongchong, who collected the Jiaxing Tripitaka on Imja Island, reprinted seven texts in 154 volumes from 1686 to 1700. The wood-blocks were then stored in Jinggwangsa Temple in Nagan. The monk Gyepa Seongneung led reprinting of one text in forty volumes in 1695 at Ssanggye Temple located on Mt. Jiri. In addition, Yongheungsa Temple in Damyang sponsored reprinting of a text in two volumes; Wangsangsa Temple on Mt. Jiri reprinted two texts in two volumes between 1713 and 1714; Hwaeomsa Temple on Mt. Jiri had three texts in seven volumes reprinted in 1724; Hamwol Haewon of Seogwangsa in Anbyeon sponsored reproduction of two texts in three volumes; and Bongjeongsa Temple in Andong reprinted three texts in thirty-four volumes in 1769.

Key words: Jiaxing Tripitaka, Buddhist scriptures, Temple-sponsored reprint, Reprinting, Baegam Seongchong(栢庵性聰), Hamwol Haewon(涵月海源), Bongjeongsa Temple(鳳停寺)

## 1. 머리말

조선후기에 유입된 嘉興大藏經(이하, 가흥장)은 불교사학과 불교출판 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사학적인 면에서 가흥장은 復刻과 改刊으로 강원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교류의 매개체였다. 불교출판에 있어서는 明朝體의 판각과 10행 20자의 목판이 불교계에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가흥장은 중국 명나라 말기부터 약 100여 년간 절강성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던 최초의 방책본 대장경이다. 이 대장경은 명·청 교체기라는 혼란한 정치소용돌이 속에서도 꾸준히 간행되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를 복각한 黃蘗大藏經이 탄생하기도 하였다.<sup>1)</sup> 그런데 1681년에 가흥장을 싣고 일본으로 가던 배가 태풍으로 인해 난파하여 전라도 荏子島에 표착한 사실이 있다.<sup>2)</sup> 이때 표류선에 있던 가흥장 가운데 약 1천여 권은 왕실에 이송되었다가 다시 남한산성 開元寺로 보내졌으나 현재로서는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흩어져 유통되었다. 전국에 흩어졌던 책 가운데 일부는 복각되어 유통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지금까지 전해져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1681년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사신이나 상인을 통해 유입된 가흥장도 발견되고 있다.<sup>3)</sup>

그런데 가흥장의 조선 전래와 복각에 관해서는 최근의 연구 결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사실을 알았더라도 중국책이라는 이유로 연구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서적들을 조선후기 승려들이 읽었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복각되어 유통되었으므로 불교사적 영향 및 서지학적 연구가

1) 大藏會 編, 『大藏經-成立と變遷』(京都: 百華苑, 1989), 100-102.

李富華, 何梅 共著, 『漢文佛教大藏經研究』(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 595-598.

2)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종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제21호(2008. 12), 264-268.

3) 필자는 2011년에 전남 담양 龍興寺에서 조선후기 草衣意恂이 보았던 佛書 가운데 가흥장 70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올해(2013) 해인사 백련암이 소장하고 있는 성철스님 유품에서도 가흥장 수십 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중반에 劉聖鍾이 북경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구된다. 특히 담양 용흥사에서 발견된 草衣憲恂(1786-1866)의 유품에 있는 가흥장에는 꼼꼼히 독서한 흔적이 발견되므로 그 책들이 초의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초의의순의 스승인 蓮潭有一(1720-1799)도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여러 大講白들도 참고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흥장의 존재와 유통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가흥장과 관련한 이런 여러 연구 과제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가흥장이 복각된 사례들을 수집하여 그 복각 주체와 배경에 대해 논구해보려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거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새로운 규명이 될 것이다. 가흥장의 유입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바이지만 그 복각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라든가 그 복각본의 사상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본 논문은 조선에 유입된 가흥장의 불교사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론으로써 그 복각본들을 소개할 것이다.

## 2. 가흥장의 유입

17세기 후반 조선과 중국의 교류는 철저하게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상을 통한 교역은 청나라의 해상봉쇄 정책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재건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대만으로 피신해 간 鄭成功(1624-1662)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1661년부터 遷界令을 내려 산동성·광둥성·복건성의 주민을 해안선에서 30리 안으로 이주시켰다. 게다가 1673년부터 1681년까지 三藩의 亂(吳三桂가 운남성에서 청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자 광둥성과 복건성에서 동조하였던 사건)이 일어나 중국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특정 항구를 통해 일본 등의 섬나라와 교역하였으므로 해상을 통한 조선과의 교역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시기인 1681년 6월에, 큰 태풍이 불어 경상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전라도 입자도에 중국 상선이 표류해 왔다. 그 배에는 여러 물품들과 더불어 佛書가 상자에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책들은 바로 가흥장이었다. 이를 나주 관아에서 수습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여러 물품과 불서들을 왕실로 이송하였다. 당시 숙종은 나주에서 올라온 불서에 심취되어 政事를 소홀히 하게 되자 대신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1681년 7월 9일의 『숙종실록』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 중국의 장사하는 배가 큰 풍랑 때문에 표류하여 羅州 智島 등지에 도달한 것이 많았다. 또 佛書로 매우 새로운 것과 佛事に 쓰는 그릇 등 기이하고 교묘한 것이 있었다. 이것들이 물에 떠다니다가 조수에 밀려와, 잇따라 전라도·충청도 등의 바닷가 여러 鎭과 浦口에서 건져 내었는데, 총계가 1천여 권이었다. 道의 신하들이 연속해서 啓聞하고, 그 책을 첨부하여 올렸다. 임금이 가져다 보고 오래도록 내려 주지 않으므로, 민정중이 이단의 서책을 오래 머물러 두고서 임금이 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김수항도 그것을 말하자, 임금이 남한산성 사찰에 나누어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sup>4)</sup>

숙종이 대신들에게 질타를 받을 정도로 오래도록 보았던 불서는 어떤 책이었을까? 필자는 가흥장의 전래에 대해 알고 난 후부터 숙종이 보았던 불서가 무슨 책인지 궁금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우연히 1854년에 聖住庵에서 간행한 통운의 『維摩詰所說經直疏』(上中下卷)의 서문과 발문을 읽던 중에 中卷에서 水觀居士로 불렸던 椒園 李忠翊(1744-1816)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필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글귀가 있었다.<sup>5)</sup> 이 글은 그의 문집인 『椒園遺藁』에도 「書自書維摩經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4)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1681) 7月 9日 庚申(條).

“時中國商舶 因大風多漂到羅州智島等處 而又有佛經繚帙甚新 佛器等物製造奇巧 漂泛海潮 連爲全羅忠淸等道 沿海諸鎭浦所拯得 通計千餘卷 道臣連續啓聞 附上其書 上取覽久不下 鼎重言 異端之書 不宜久留聖覽 壽恒亦言之 上乃命分賜南漢寺刹.”

5) 필자는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해인사 백련암(성철 스님 유품)과 담양 용흥사 소장본의 『維摩詰所說經直疏』(鐵原 寶蓋山 聖住庵 1854年 刊) 中卷에서 이충익의 서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숙종 7년 신유년(1681)에 주인도 없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어떤 배가 호남 임자도에 정박하였는데 불서가 가득 실려 있었다. 바람과 암초에 부딪혀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았고 남은 것들은 수레에 실어 서울로 보냈다. 그 당시 관서를 역임한 恬軒 任相元이 승지로 있었는데 많은 불서를 암송하고 있어서 諳內典이라 불렸다. 임금이 유마힐경을 보다가 임상원에게 해설해달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임상원이 사양하며 ‘신의 직분은 경연에서 질의 하는 것인데 여전에서 불서를 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옹기여기고 불서를 모두 남한산성 개원사에 보냈다. 그리고 ‘유마힐경’ 3권은 임상원에게 하사하여 그 집안에서 소장하였다. 후에 어린 승려가 그것을 얻어 권첩을 절개하고 필사하였지만, 임상원의 증손 希聖이 다시 얻어 소장하였다. 나는 사람을 통해 얻어 보았는데 오나라 지검이 두 번째로 번역한 것이었다. 문구가 어렵고 심오하여 여러 차례 뜻을 생각하였으나 결국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다른 책에서 이 경전을 인용한 곳을 보아도 대부분 문장이 다르거나 빠져서 실려 있지 않았다. 다만 권첩을 수리하고 완미한 후에 돌려주어 지금은 그 집안에 있다. 상주 李學源이 선산에 있을 때 그 아들 田秀가 따라 갔다가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서 ‘유마힐경’ 3권을 인출하여 서울에 왔다. 바로 이 책이다. 나는 똑같이 필사하고 원본은 돌려주었다. 이 책을 오나라 지검의 번역본과 비교해보니 읽기 쉬웠고 다른 책에서 인용한 부분과도 모두 일치하였다. 비로소 역대 존속들이 진나라 구마라집 번역본을 널리 보았던 이유를 알았다.<sup>6)</sup>

이충익은 任相元(1638-1697)의 후손으로부터 지검이 번역한 『維摩詰經』을 빌려 보고 필사해두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답답해하던 차에 이학원의 아들로부터 해인사 소장본 구마라집 번역의 『維摩詰所說經』을 얻어 필사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어려워했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 구마라집 번역의 필사본 앞에 서문을 달았던 것 같다. 바로 이 서문을 통해 숙종이 보았던 불서가 『유마힐경』이었고 그 책을 임상원에게 하사하였음을

6) 鐵原 寶蓋山 聖住庵 1854年 刊『維摩詰所說經直疏』中卷；『椒園遺藁』冊2, 『書自書維摩經後』.

“肅廟七年辛酉 有一海舶 無人不知 自何來泊 湖南荏子島 滿載佛書 爲風石所激 敗書沈沒 略存輦至京師 時恬軒任判書相元爲承旨 號諳內典 上取維摩詰經 命爲解說 判書辭曰 臣職帶經筵參贊 而於殿上講佛書 恐非宜 上然之 書盡輸南漢開元寺 維摩詰經三卷 遂賜判書藏于家 後爲童行所得 折開卷疊 艸寫程文 判書曾孫眞長希聖 復獲而藏之 余因人得見之 東吳支謙師於大帝時 第二譯者也 文句艱深 玩釋累遭 竟未通曉 他書所引本經 文多異同 或闕不載 但爲補葺完好而歸之 今在其家 李尙州學源爲善山時 其子田秀隨往 就陝川海印寺藏中 印維摩詰經三卷歸京師 卽是本也 余爲書寫如此 原本歸于李 是書比吳譯稍易讀 他書所引悉具 始知歷代尊宿皆弘秦本。”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충익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 1854년 聖住庵 간행의 『유마힐소설경직소』는 임상원이 숙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유마힐경』과도 다른 책이고 해인사에서 구하여 필사한 책과도 다른 책이다.

『유마힐소설경직소』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힐소설경』에 명나라 통윤이 疏를 붙인 것으로 가흥장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성주암 간행의 『유마힐소설경직소』는 가흥장을 복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판본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복각한 것이다. 1854년에 寶月堂 慧昭가 쓴 上卷의 서문에 “1853년에 劉聖鍾이 북경에서 유마힐경직소를 구해와 쌍월당 성활대사에게 보여주었다.”<sup>7)</sup>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이충익과는 별로 상관없이 판각한 책에 이충익의 서문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충익의 서문을 이 책의 中卷에 수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지점이 번역한 『유마힐경』이 당시에 필사되어 유통되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通潤(1565-1624)이 疏를 붙인 『유마힐소설경직소』를 구한 반가움에 판각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이충익의 글을 함께 새겨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下卷에 華隱護敬이 쓴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경전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있었지만 이를 해석한 疏가 예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이 종종 경전을 번역하다가 막막하여 그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총림에서 병통으로 여긴지 오래되었다. 계축년(1853)에 雙月性濶 선사가 서울의 劉聖鍾 집안에서 통윤의 『유마힐소설경직소』를 얻어 간행하였다. 이듬해 갑인년(1854)에 나에게 교감해달라고 요청하여 완미하며 거듭 그 글을 연역하였다.<sup>8)</sup>

당시 『유마힐경』이 유통되었지만 그 뜻이 어려워 공부하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성종이 북경에서 구해온 『유마힐소설경직소』를 간

7) 聖住庵 1854年 刊 위의 책 上卷, 序文.

“咸豐三年癸丑(1853) 信士劉聖鍾 求來維摩詰經直疏於燕京 示于雙月堂性濶大師.”

8) 聖住庵 1854年 刊 위의 책 下卷, 跋文.

“此經我東曾有 而舊無疏釋 學者翻經 往往有杳漠 莫能窺其涯窮其源 叢林病焉者久矣 歲癸丑 雙月性濶禪師 得通潤直疏於京中 信士劉聖鍾家 繡梓登刊 越明年甲寅 請余校證 余玩味再釋其文.”

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아쉽게도 숙종이 임상원에게 하사한 책과 이충익 필사본의 행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세기 중반에 『유마힐경』이 유통되었다면 임상원 집안 소장의 『유마힐경』이 필사 유통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의 행방에 관해서도 언젠가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위의 『숙종실록』과 『서자서유마경후』에서 알 수 있듯이 배에 있던 물건들이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배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표류선이 먼 바다에서 파괴되었다면 임자도까지 오지 못하고 침몰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배에 있던 물건들이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또 임자도까지 떠밀려 왔다면 표류선은 임자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부분 파손된 후 해류를 따라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신유년(1681)에 정처를 알 수 없는 한 상선이 표류해 七山島에 이르러 문득 파괴되었고, 불서를 가득 담은 수많은 목함들이 파도를 따라 해안가에 밀려왔다.<sup>9)</sup>

이 기록을 통해 중국 상선이 태풍으로 인해 전남 영광 칠산도까지 표류해 와서 파괴되고 다시 임자도까지 파도에 떠밀려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칠산도는 영광군 낙월면 일대에 있는 무인도로써 임자도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아마도 한반도 남쪽을 지나던 상선이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로 부는 태풍을 만나 북쪽으로 표류하여 칠산도에 이르고, 여기서 암초에 부딪혀 파손된 후 다시 남쪽으로 떠밀려 임자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표류선이 최종 표착한 곳은 칠산도에서 임자도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의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다.

임자도에 표착한 표류선의 불서들은 대부분 나주관아에서 수습하였지만 해안가의 불서들은 미처 수습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나주관아에서 수습한 것은 1천여 권에 불과했지만 당시 가흥장은 1만여 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

9) 昌平 龍興寺 1694年 刊『禪源諸詮集都序』跋文；서수정, “『禪源諸詮集都序』의 간행과 유통판본 고찰,” 『한국불교학』 제59집(2011. 2), 215-216에서 재인용.

“歲在辛酉 海舶自無何而漂 至七山島 忽破壞之 千函萬軸書 爲逐浪流散並海.”

기 때문이다.<sup>10)</sup> 그렇다면 관아에서 수습하지 못한 책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시 가흥장을 수집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가 栢庵性聰(1631-1700)이었다. 그는 1681년에 중국 표류선이 임자도에 표착했을 때 인근 영광 佛甲寺에 있다가 표류선의 불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해안가에서 여러 책을 수습하였다.<sup>11)</sup> 하지만 완질을 구한 책은 그리 많지 않아서 缺本들은 인근 사찰에서 구하기도 하였던 모양이다.

제가 세 번 능가사에 갔고, 두 번 소요산 선운사에 갔으며, 그 외에 바다와 산들을 찾아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전들을 찾아서 400여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화엄소초 80권 중에 겨우 절반 정도 얻었지만 아직 전체를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8권을 흔쾌히 보여주셔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 주시니 이 또한 범보시의 일대 인연일 것입니다.<sup>12)</sup>

백암성충이 구봉산 보현사 승려에게 보낸 위의 편지에서 불서 수집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만해도 백암성충은 80권 『화엄소초』 가운데 겨우 절반밖에 구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런 수집의 노력으로 마침내 전질을 수집할 수 있었으며, 여러 사찰에서 수집한 가흥장을 복각할 수 있었다. 그 복각한 판본의 서문이나 발문에는 대부분 1681년 표류선에 있던 불서를 구하여 간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유입된 가흥장을 복각하여 유통했던 불서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 다음 장에서 가흥장의 복각 주체를 통해 복각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0) 李富華, 何梅 共著의 『漢文佛敎大藏經研究』(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 465쪽에서는 약 2,195부 10,332권이라고 하였고, 大藏會 編(1989) 위의 책 82쪽에서는 1,618부 7,334권이라 하였다.

11) 『栢庵堂性聰大禪師碑文陰記』(李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301)에 백암성충이 영광 불갑사에 주석하다가 해안가로 달려가 가흥장을 수습하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불갑사 팔상전 복장유물에서 가흥장 19종이 발굴되었는데 이때 수습된 책들이 아닐까 추정된다.

12) 『栢庵集』 『與九峰普賢寺僧』; 『韓國佛敎全書』 第8冊, 474上-中.

“某三入楞伽 再到逍遙禪雲 其餘並海諸山 無不投蹤 搜采衆經 已得四百餘卷 … 雜華疏鈔八十卷 才得太半 而未由完部 此余朝夕懸係者也 貴寺中所留一匣八卷 快然見許 少補其缺 則此亦法施之一大緣也.”

### 3. 가흥장의 복각 주체

숙종에 의해 개원사로 이관되거나 하사된 가흥장은 대부분 그 행방을 알지 못하지만, 당시 표류선에 있던 불서 중 일부는 불교계에 유통되었고 그 가운데 復刻이나 改刊되어 전래되는 책들이 있다. 또한 유성종이 1853년에 『유마힐소설 경직소』를 구입해온 것처럼 1681년의 표류선에 있던 가흥장이 아니라 별도로 중국에서 구매한 가흥장도 있었던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 복각본의 유입 경로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확인한 가흥장 복각본은 모두 19종 242권이다.

<표 1> 가흥장 복각본

연번	책명	저역자	발행사항	가흥장 목록 번호
1	四經持驗記 (4권)	歷朝華嚴經持驗紀	樂安 澄光寺, 1686년	續51 (新, 권19, 239~245쪽)
2		歷朝法華持驗紀		續52 (新, 권19, 247~270쪽)
3		歷朝金剛持驗紀		續53 (新, 권19, 271~302쪽)
4		觀世音持驗紀		續54 (新, 권19, 303~320쪽)
5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10권)	鳩摩羅什(後秦) 譯, 宗密(唐) 疏, 子璿(宋) 記, 行策(清) 編	樂安 澄光寺, 1686년	又續6 (新, 권31, 671~748쪽)
6	大明三藏法數(50권)	一如(明) 等 編註	樂安 澄光寺, 1690년	正1622 (新, 권6, 539~846쪽)
7	大方廣佛華嚴經疏鈔(90권)	澄觀(唐) 撰	樂安 澄光寺, 1690~1700년	續2 (新, 권11, 권12)
8	禪源詮證集都序(2권)	宗密(唐) 述	昌平 龍興寺, 1694년	正1649 (新, 권9, 359~372쪽)
9	華嚴懸談會玄記(40권)	普瑞(元) 集	智異山 雙溪寺, 1695년	正1623 (新, 권7, 1~247쪽)
10	注華嚴法界觀門(1권)	宗密(唐) 注	智異山 王山寺, 1713년	正1597 (新, 권5, 611~616쪽)

연번	책명	저역자	발행사항	가흥장 목록 번호
11	因明入正理論解(1권)	眞界(明) 撰	智異山 王山寺, 1714년	續79 (新, 권19, 657~666쪽)
12	歸元直指集(2권)	一元宗本(明) 編	智異山 華嚴寺, 1724년	續118 (新, 권22, 1~55쪽)
13	准提淨業(3권)	地婆訶羅(唐) 譯	智異山 華嚴寺, 1724년	正343 (新, 권19, 609~627쪽)
14	寶王三昧念佛直指(2권)	妙叶(明) 集	智異山 華嚴寺, 1724년	續88 (新, 권20, 109~134쪽)
15	百法論	大乘百法明門論 (1권)	玄奘(唐) 譯  安邊 釋王寺, 1750년	續83 (新, 권19, 693쪽)
16		性相通說(2권)		玄奘(唐) 譯, 德清(明) 述  續80(新에 없음)
17	菩薩戒義疏(2권)	智顓(隋) 說, 灌頂(唐) 記	安東 鳳停寺, 1769년	正1555 (新, 권3, 411~425쪽)
18	四分戒本如釋(12권)	佛陀耶舍(後秦) 譯, 弘贊(明) 釋	安東 鳳停寺, 1769년	又續49 (新, 권35, 233~322쪽)
19	起信論疏筆削記(20권)	子璿(宋) 錄	安東 鳳停寺, 1769년	正1627 (新, 권7, 471~563쪽)

\* 新은 新文豊出版公司 간행 가흥대장경 영인본을 말함

### 3.1 낙안 징광사와 담양 용흥사

가흥장 복각본 19종 가운데 백암성총이 낙안 징광사를 중심으로 간행했던 불서와 그 불교사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어 왔다.<sup>13)</sup> 백암성총은 4종의 지험기를 복각하고 합철하여 ‘四經持驗記’라는 제목으로 유통시켰으며,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10권 3책), 『대명삼장법수』(50권 10책), 『대방광불화엄경소초』(90권 80책)를 복각하여 유통시켰다.<sup>14)</sup>

13) 조명제,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 68(2008. 9), 89-111.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257-265.

14) 백암성총이 간행한 『淨土寶書』와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도 가흥장과 관련이 있지만 이 두 책은 원본 그대로 새긴 復刻이 아니라 내용을 抄出하거나 會編하여 새긴 改刊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사경지험기』는 1686년에 징광사에서 판각되었다. 이 책은 청나라 周克復이 산술한 『역조화엄경지험기』, 『역조법화지험기』, 『역조금강지험기』, 『관세음지험기』를 1책으로 묶은 것이다.<sup>15)</sup> 이 4종이 원래부터 1책으로 장정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모두 짤막한 글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역조화엄경지험기』는 22장, 『역조법화지험기』는 26장, 『역조금강지험기』와 『관세음지험기』는 20장으로 모두 합쳐도 88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백암성충이 이 책을 자의적으로 합쳤다가보다 합쳐되어 있는 가홍장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 복각했을 것이다. 또 표지 제목도 원래 『사경지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 역시 1686년에 징광사에서 판각되었다.<sup>16)</sup> 이 책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경』에 대한 宗密의 疏를 송나라 子璿이 刊定한 것을 청나라 行策이 회편한 것이다. 백암성충은 10권 3책의 완본을 구하여 1686년에 징광사에서 복각하면서 가홍장과 마찬가지로 3책(권1-4, 권5-7, 권8-10)으로 장정하였던 것 같다.<sup>17)</sup> 그리고 이 판본은, 후술하겠지만, 1752년에 함월해원(1691-1770)이 주도하여 안변 석왕사에서 재복각되었다. 그만큼 이 책의 인출이 잦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명삼장법수』는 총50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불교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불교사전이라 할 수 있다. 복각은 1690년에 정혜사, 고성 雲興寺, 함양 靈隱寺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간기 및 인출기는 아래와 같다.

卷6末: 曹溪山人雋覺 募緣刻此大明法數 自第六至第十卷移留澄光寺  
卷10末: 康熙二十九年(1690)庚午季春日 定慧寺開刊 于松廣寺傳留

- 15) 『韓國佛敎全書』 第8冊에 실려 있는 『四經持驗記』에는 “栢庵性聰 集”이라고 하여 백암성충이 모아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백암성충은 가홍장에 있던 4편의 지험기를 복각하였을 뿐이다.
- 16) 樂安 澄光寺 1686年 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卷5末.  
“康熙二十五年丙寅(1686)四月全羅道樂安郡金華山澄光寺開刊.”
- 17) 澄光寺 1686年 刊 위의 책, 『重刻金剛經疏記會編序』.  
“대부분 권질이 산일되어 완질로 만들 수 없었으나 청나라 형계 행책선사가 회편한 금강경 소기는 1권 3책으로 완본이었다(舉皆散逸卷帙 未成全部 而清菴溪策禪師 所會編金剛經疏記一帙三冊 幸獲全完).”

- 卷20末: 康熙二十九年庚午(1690)清和日 開刊  
 卷27末: 康熙二十九年(1690)庚午暮春 固城地雲興寺開刊  
 卷30末: 康熙二十九年(1690)庚午暮春 固城地雲興寺開刊  
 卷35末: 康熙二十九年(1690)庚午七月日 慶尙道固城地臥龍山雲興寺自二十六至四十五開刊  
 卷49末: 康熙二十九年(1690)庚午四月日 慶尙右道咸陽地白雲山靈隱寺開刊

위의 기록으로 볼 때, 권6-10은 정혜사에서, 권26-45는 운흥사에서 판각하였고, 권47-50은 영은사에서 판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권1-5와 권11-25는 판각장소가 불분명한데 아마도 징광사에서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목판들은 모두 징광사에서 보관하였고 그 발문을 백암성충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징광사에서 판각한 것은 굳이 그 판각장소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초』(이하, 『화엄소초』)는 華嚴玄談 8권과 華嚴疏鈔 80권, 그리고 普賢行願品疏와 釐古凡例音釋 각 1책 등 총90권 80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자문 순서로 권차를 표시하고 있다. 洪字卷(제7책)은 동래 梵魚寺에서 간행하였고, 成(제27책)-呂字卷(제30책)은 순천 松廣寺, 潛(제70책)~官字卷(제78책)은 지리산 大源庵에서 간행하는 등 여러 사찰에서 간행하여 징광사에 목판을 안치하였다.<sup>18)</sup> 그런데 1770년에 징광사의 화재로 인해 『화엄소초』 판목이 모두 불에 타버리자<sup>19)</sup> 1773-75년에 덕유산 영각사에 있던 雪坡尙彦(1707-1791)이 주도하여 그 전체를 다시 복각한다.<sup>20)</sup> 이때에도 대부분 지리산 臺岩庵과 內院

18) 당시 『華嚴疏鈔』를 판각한 사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19) 蓮潭有一, 『重刊華嚴經後序』(德裕山 靈覺寺 1775年 刊 『華嚴疏鈔』; 『韓國佛教全書』 第10冊 259中-下)에서 “지난 경인년(1770) 겨울에 장경각에 화재가 나서 80권판이 모두 재가 되어 날아갔다(曩於庚寅冬板闕災 八十卷板子 盡爲灰飛).”라고 하여 당시 징광사에 화재가 나서 목판이 불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大明三藏法數』는 그 이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판본(중앙승가대 도서관 소장본)이 있으므로 이때 불에 타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大明三藏法數』의 목판이 이미 다른 곳에 안치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 蓮潭有一, 『重刊華嚴經後序』(靈覺寺 1775年 刊 위의 책).

“지금 여러 큰 대덕들이 거의 입적하셨는데 오직 설과 대사만이 살아계셔서 영광전처럼

精寺 등 인근 여러 사찰에서 판각하여 덕유산 靈覺寺에 안치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0년이 지나 잦은 引經으로 인해 목판이 마멸되어 인출한 책의 글자를 알아 보기 어렵게 되고, 또 목판이 남부지방인 덕유산에 있었기 때문에 인출본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경기도 지역에 있던 南湖永奇가 奉恩寺에서 1855년에 이를 다시 복각한다.<sup>21)</sup> 그 목판이 현재 서울 봉은사 板殿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 판본의 마지막 권에는 정광사본과 영각사본의 달라진 글자를 비교한 『靈澄二本對校』가 있다. 이처럼 『화엄소초』가 세 번이나 판각되고 목판이 마멸될 정도로 많이 인출된 것에서 보듯이 가홍장 복각본이 불교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백암성충이 표류선의 가홍장을 수집하여 간행하던 1694년에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서는 가홍장 『禪源諸詮集都序』를 복각하였다. 우리나라에 유통된 『선원제전집도서』는 크게 宋板本과 明藏本으로 나뉜다. 송판본은 裴休(791-870)의 필사본이 10세기 말 송나라 契玄에 의해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고, 명장본은 14세기 초에 雪堂普仁이 새로 교정하여 간행한 것으로써 명나라 南藏과 가홍장에 수록된 것이다.<sup>22)</sup> 당시 가홍장에 수록된 명장본이 용흥사에서 복각되었다. 그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辛酉年(1681) 정치를 알 수 없는 한 상선이 표류해 七山島에 이르러 문득 파괴되었고, 불서를 가득 담은 수많은 목함들이 파도를 따라 해안가에 흩어져 진실로 마음 아팠다. 그 가운데 규봉종필이 지은 『선원제전집도서』는 교화의 연원이며 깊고 깊은 뜻을 함장하고 있으므로 깨달음의 길을 열고 길 잃은 이를 나루터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판각하여 오래도록 전수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隱愚가 四恩에 보답하고자 명양 용악산 용흥사에서 이 책을 간행하였다. 인연을 모으고 장인을 모아 1694년에 판각하기 시작하여 그 해에 작업을 마쳤으니, 눈 있고 귀 있는 자가 이 책을 보고 듣는 인연으로 여래

---

총림의 높은 우리름을 받고 계시니 『화엄소초』를 판각하는 큰 일을 실로 피할 수 없었다. … 갑오년(1774) 봄에 일을 시작하여 다음해 을미년(1775) 여름에 일을 마쳐 靈覺寺에 판각을 세우고 보관하였다(今諸大耆德 淪落殆盡 而惟大師存焉 叢林仰之 巋然 若魯靈光 則大經鏗梓之大事 寔爲躲閃不得 … 越明年乙未夏竣功 建閣于靈覺寺 以藏之).”

21) 김종진, “1850년대 불서간행운동과 불교가사 - 남호영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4집(2004. 6), 111-130.

22) 서수정(2011) 앞의 논문, 201-206.

의 知見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고자 하였다.<sup>23)</sup>

위의 발문을 통해 隱愚라고 하는 비구가 표류선에 있던 가흥장을 구하여 용흥사에서 복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용흥사는 호남에서 규모가 큰 사찰 가운데 하나였으므로<sup>24)</sup> 강원 교육을 위해 이 책을 복각하였던 것 같다. 한편 霜峯淨源(1627-1709)은 표류선이 왔던 그 이듬해인 1682년에 가흥장 『선원제전집도서』를 보고 分科하여 1701년에 聞慶 鳳巖寺에서 간행하고 다음과 같이 발문을 붙였다.

배우는 자들이 얻고 싶은 것 가운데 중국 간행 『선원제전집도서』만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그 저본이 없어서 실로 얻기 어려워 전전공공하였다. 내가 경기 지역에 있을 때 북경으로 가는 사신에게 사려고 했지만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임술년(1682)에 우연히 이 책을 얻게 되어 매우 기뻐다. (중략) 雪堂普仁이 앞사람의 뜻을 이어 뒷사람에게 이어주었듯이 나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분과하여 하나로 통하게 하고 글자도 여러 군데 고쳤다.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는 격이고 좋은 옥을 캐내고도 보배를 망치는 격이니 先德에게 죄를 도망칠 데가 없을 뿐이다.<sup>25)</sup>

23) 昌平 龍興寺 1694年 刊『禪源諸詮集都序』, 跋文; 서수정(2011)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歲在辛酉 海舶自無何而漂至七山島 忽破壞之 千函萬軸書 爲逐浪流散並海 誠可悲夫 至於圭峯定慧禪師所撰諸詮都序者 乃一化淵源甚深奧藏也 開覺路渡迷津 莫如刊梓 以壽其傳受 有道人隱愚 欲報四恩 開刊于鳴陽地龍岳山龍興寺 募緣會工 自甲戌始役訖功於周年 將欲使有耳目者 因于見聞 以悟入如來知見矣.”

24) 昌平 龍興寺 1724年 刊『全羅南道潭陽郡月山面龍興寺事蹟』.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 360개의 비보사찰이 있다. 우선 수승한 규모로써 논한다면 지방의 으뜸인 사찰로 3개가 있으니, 금강산의 유점사, 묘향산의 보현사, 수양산의 신흥사이다. 호남과 영남의 사찰 가운데 가장 이름난 곳은 5곳이 있으니, 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두류산 쌍계사, 남주의 도감사, 명양의 용흥사이다(今夫域中僧藍 揚有三百六十禪補之所 且舉勝制而論之 夫關外魁剎有三焉 如金剛之楡店也 妙香之普賢也 首陽之神光也 是也 至於湖嶺諸剎最知名者 猶將五處 如俗離之法住也 伽椰之海印也 頭流之雙溪也 以至朗州之道岬也 鳴陽之龍興也 是也).”

25) 聞慶 鳳巖寺 1701年 刊『禪源諸詮集都序』, 『唐本對校後跋』; 『韓國佛教全書』 第8冊, 438下-439上.

“學者之所欲得者 莫如都序唐本 而仁域之所未有底 信難得之 良用屹屹 余頃在畿甸 購求赴燕使諸公 而徒以懷金缺望者 久矣 歲次壬戌 偶得此文 施施于懷也 (중략) 謹續雪堂之續前 庸資霜峰之資後 科分一通 文改數處 入海算沙 琢玉傷寶 無所逃罪於先德也爾.”

상봉정원이 본 책 역시 가홍장이었지만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우연히 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사신으로부터 구입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가 얻었다고 한 해가 1682년이므로 아마도 1681년의 표류선에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용흥사 은우 비구가 구했던 책과는 다른 가홍장이었던 것 같다. 담양 용흥사와 문경 봉암사는 거리도 멀고, 상봉정원이 용흥사나 은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류선에 『선원제전집 도서』가 여러 권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마도 표류선에 여러 帙의 가홍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책들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 3.2 지리산 쌍계사·왕산사·화엄사

가홍장 『화엄현담회현기』는 총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桂坡性能이 주도하여 1695년에 지리산 쌍계사에서 복각하였고,<sup>26)</sup> 그 서문과 발문을 백암성충이 썼다. 이 책은 당나라 청량징관이 쓴 『화엄현담』을 원나라 보서가 주석한 것으로 조선후기 화엄학의 유행에 크게 기여한 책이다. 백암성충은 그 발문에서 “지금 鶴駕山人 계과성능이 힘들게 인연을 모아 목판에 새겨 후학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앞의 두 보살(징관과 보서)과 뜻이 합하고 마음이 같았으니 훗날 화엄과 관련한 글을 읽는 자들은 더욱더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27)</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학가산은 안동 봉정사를 말한다. 계과성능은 봉정사 출신으로 쌍계사에 주석하면서 많은 불서를 간행하였다. 그 가운데 『화엄현담회현기』는 전국 강원에 보급되어 강원의 참고서로 활용되었으며 蓮潭有一(1720-1799)이나 仁嶽義沾(1746-1796)에 의해 私記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백암성충과 계과성능의 가홍장 복각 사업은 石室明眼(1646-1710)의 제자 印

26) 『華嚴懸談會玄記』 卷34末에 “康熙乙亥(1695)智異山雙溪寺開刊”이라 되어 있고, 卷40末에 “板留于智異山雙溪寺 大化士 性能比丘”라고 되어 있다.

27) 1695年 刊 『華嚴懸談會玄記』, 跋文.

“今鶴駕山人性能 苦心募緣 銅鐫方板 嘉惠後學 與前之二菩薩 志合而心同 後之讀華嚴者 尤致意而毋忽哉.”

湛에게로 이어진다. 인담은 가흥장 『注華嚴法界觀門』과 『因明入正理論解』를 1713-14년에 지리산 왕산사에서 복각하는데, 백암성총의 제자이며 석실명안과 동문수학했던 無用秀演(1651-1719)이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重刊華嚴法界觀門跋: 우리 문하의 설암공<sup>28)</sup>이 중국책을 얻어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판각하여 널리 유포하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였다. 오호! 그 사법제자 인담이 마음으로 스승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서휘상인과 상의하였다. 서휘는 판각을 잘하여 직접 나무에 새겨 법계관문과 큰 인연을 맺었으니, 아마도 그 소원하는 뜻이 깊었던 것 같다. 아! 설암공과 인담과 서휘, 세 사람의 마음이 합동하여 능히 일을 이루어 책을 만들었다. 이에 중간한 법계관문 뒤에 발문을 쓴다.<sup>29)</sup>

重刊因明論跋: 나의 범형 석실명안이 신유년의 태풍으로 표류해온 중국 선박에서 얻었던 것을 판각하지 못하고 입적하였는데, 그 사법제자인 인담이 스승의 뜻을 이어 목판에 새겼다. 인담은 국가와 부처님과 스승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아는 자라고 할 만하다. 이에 발문을 쓴다.<sup>30)</sup>

석실명안과 무용수연은 스승인 백암성총과 함께 불서 판각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석실명안의 제자 인담 역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담의 가흥장 복각은 백암성총의 遺志를 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석실명안이 스승의 유지를 이어 가흥장 일부를 판각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자 그 제자가 복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복각한 『주화엄법계관문』은 『화엄소초』와 더불어 조선 후기 화엄학 유행에 일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인명입정리론해』는 불교 因明學의 논서로서 매우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

28) 당시 설암대사로는 雪巖秋鶖(1651~1706)과 石室明眼(1646~1710)이 있는데 무용수연이 我門兄이라고 하였으므로 석실명안이 확실하다. 석실명안 역시 백암성총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29) 1713年 刊『注華嚴法界觀門』 「重刊華嚴法界觀門跋」.  
“我門兄雪嵩公得唐本一冊心重之 欲鋟梓而廣其傳 未果忽焉 嗚呼 其嗣法湛公 心表畢欲如其師之志 與瑞輝上人 謀焉 輝劬劬好手 手自模板 於法界觀門 結大因緣 其志願深矣 噫 三心合同 能事斯畢可書 此爲重刊法界觀門後跋.”

30) 1714年 刊『因明入正理論解』 「重刊因明論跋」.  
“我法兄石室公 幸得於辛酉颶風唐舶漂蕩之餘 未上板而西焉 其嗣法湛公 繼其志 鏤諸木板 公於一國於佛恩師恩 可謂知報者矣 是爲跋.”

어서인지 조선후기 다른 기록에서는 그 교학적 내용에 대해 언급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1724년 지리산 화엄사에서 『准提淨業』, 『寶王三昧念佛直指』, 『歸元直指集』을 간행하는데, 이 3종의 책은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서 온 龍谷一謙, 이 가지고 있던 가홍장이었다. 이 세 책은 모두 정토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는 禪의 徑截門과 교학의 圓頓門과 정토의 念佛門의 三門修學이 보편화되고 있었으므로<sup>31)</sup> 그 영향으로 복각되었을 것이다. 또한 백암성충이 가홍장 『화엄소초』나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 등 교학적인 책도 복각하였지만, 가홍장 『사경지험기』를 복각하고 『정토찬』을 찬술하여 서방정토신앙을 강조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용곡일심이 이 가홍장을 석왕사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碧梧初燭이 쓴 『준제정업』의 서문에서는 용곡일심이 석왕사로부터 와서 ‘준제경’ 1권을 꺼내 보여주었다<sup>32)</sup>고 하여 마치 석왕사에서부터 가져온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용곡일심이 쓴 발문에서는 다르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발문을 보자.

나는 어려서 서방정토의 법을 배웠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완전한 모습을

31)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218-225. ; 김용태(2010) 앞의 책, 223-240.

32) 智異山 華嚴寺 1724年 刊 『准提淨業』 『准提經序』.

“근래에 용곡장로가 관복으로부터 조계산에 왔다. 나는 한 번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챘는데 문득 준제경 1권을 꺼내 보여주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지 않았던 책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판각하여 인출하는 것에 대해 공은 어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장로는 진실로 기뻐하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동지들과 함께 판각하고자 하였다. 마침 지리산 화엄사 順學장로가 함께 도모하여 힘써 도와주고 인연을 모아 판각하였는데, 법계처럼 광대하고 허공처럼 끝이 없는 은혜로운 보시들이 와서 法施가 되었으니, 어찌 칠구지불모대비심보다 못하겠는가. 옆에서 지켜보며 기뻐하고 한껏 찬탄한 자 누구인가. 조계산의 벽오초형이로다(今有龍谷長老 自關北來曹溪 余一見知其非常人 忽出准提經一卷示之 曰慨我靑丘未曾有本 灾木印施 如公意何 長老心悅誠伏 拳拳服膺 欲與同志共之 適因方丈之華嚴寺 學長老 叶謀拮据 募緣鋳梓 廣大如法界 究竟如虛空 惠施將來 其爲法施 豈讓乎七俱胝佛母心者哉 傍觀隨喜而滿口讚許者誰 曹溪碧梧道人初燭).”

보지 못하고 부처님 법의 끈이 끊어진 세상에 잘난 체 하며 섞여 살았다. 나이 50이 되어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 살았던) 거백옥의 일을 알았고, 교학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뜬 구름이오 짧은 지팡이일 뿐임을 알았다. 그래서 인연 따라 남하하여 지리산과 조계산을 번갈아 가며 지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준제경’과 ‘염불지지’와 ‘귀원지지’의 세 책을 얻었다. 이 보배로운 책들은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었다. 모든 불제자들이 외우고 익히며 그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래서 동지 순학 등과 더불어 인연을 모으고 판각하여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sup>33)</sup>

용곡일심은 스스로 세 권의 가흥장을 우연히 얻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어려서 서방정토의 법을 배웠다는 대목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이 50세 이후에 정토신앙을 버리고 禪 수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지만 정토신앙과 관련된 책을 구하여 판각했던 점은 여전히 그가 정토신앙에 심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왕사에서부터 그 책을 가지고 왔을 혐의를 지우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이 세 책이 간행되고 난 지 26년이 지난 후 안변 석왕사에서 함월해원이 주도하여 가흥장을 복각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석왕사에 여러 種의 가흥장이 소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곡일심이 가지고 있던 가흥장은 석왕사에서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가흥장일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안변 석왕사와 안동 봉정사 등 서해안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가흥장 복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3 안변 석왕사와 안동 봉정사

함월해원은 1750년에 석왕사에서 가흥장 『大乘百法明門論』과 『性相通說』을 승각하였다. 그 책말에 “此論大文二張 幸得他本中 附卷首 關北安邊釋王寺刊百法論一部”라고 하여 『대승백법명문론』 2장을 『성상통설』 앞에 붙인다고 하였

33) 華嚴寺 1724年 刊 위의 책, 『後跋』.

“余早學西法全象 難見佛法 絕紐之世 濫吹齊門 年登五十 斗覺蘊玉之知 非放教修禪 共浮雲短筇 隨緣落南 智異曹溪 南中勝地 遙往棲止 而偶得准提·念佛直指·皈元直指三本 經之利寶 乃國之所無者 凡爲釋子者 不可不誦習而依行 故與同志順學等 募緣鋟梓以廣其傳.”

으므로 두 종의 논서를 1책으로 복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34)</sup> 이 논서들은 유식학의 논서로써 조선후기 불교 교학의 수준과 경향을 가늠하는데 매우 주목되는 책이다. 이 책의 간행 사실은 당시 불교계에서 화엄학을 제외한 교학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이해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불교사상적 영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간행과 유통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惺聰이 쓴 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서 판본이 없고 필사본이 유통되어 이쪽저쪽에서 베끼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전하다가 그 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종사들이 강의할 때 자주 그러한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이때에 함월대사가 이러한 것을 개탄한지 오래되었는데 우연히 중국 판본을 구하였으니, 바다에 빠졌다가 배를 만난 격이요 허공에 떨어졌다가 학을 탄 격이었다. (중략) 건륭 15년 경오년(1750) 8월 학곡사문 국충이 삼가 발문을 쓰다.<sup>35)</sup>

함월해원 역시 우연히 이 책들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그 경로를 알 수 없다. 1681년 표류선에 있던 가홍장일 가능성도 있고 사신이나 상인을 통해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남한산성 개원사에 있던 것을 입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책을 간행한지 2년 후인 1752년에 함월해원은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편』을 재복각한다. 그 서문에서 그는 백암성충이 간행했던 목판이 마멸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복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6)</sup> 그런데 이때 복각된 『금강반야경소론찬요간정기회

34) 『性相通說』은 新文豐出版公司 발행본 『嘉興大藏經』에는 없으나 北京故宮博物院 소장 가홍장 목록에는 보인다. 북경고궁박물관 소장본 목록은 中嶋隆藏의 『明萬曆嘉興藏の出版とその影響』(東京: 東北大學大學院, 2005)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석왕사의 연혁 및 서적 간행에 대해서는 임기영의 “안변 석왕사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54호(2013. 6)를 참조하기 바란다.

35) 安邊 釋王寺 1750年 刊 『百法論』 『刊百法論後跋』.  
“海東僻在一隅 板本闕如 而書本流行 此謄彼謄 歷傳多手 不無根銀莫辨之患 宗師臨講 極涉病焉 當是時也 涵月大士慨嘆者久矣 偶得唐板正本 可謂溺海遇舟 墜空乘鶴者也 (중략) 乾隆十五年庚午仲秋鶴谷沙門剋聰謹跋.”

36) 安邊 釋王寺 1752年 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重刻金剛經疏記序』.

편』의 卷6末에 “鶴城使君金公相福 穩城使君尹公景淵”<sup>37)</sup>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金相福(1714-1782)은 바로 백암성종의 비문을 쓴 사람이다. 그렇다면 석왕사에 있던 가흥장은 백암성종이 수집했던 것 가운데 일부가 어떤 이유로 석왕사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더 이상 석왕사의 가흥장 복각이나 개간은 보이지 않는다.

가흥장의 복각은 1769년에 봉정사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봉정사에서 복각된 가흥장은 『菩薩戒義疏』, 『四分戒本如釋』, 『起信論疏筆削記』 3종이다. 말하자면 계율과 관련된 2종과 강원교재 1종이다.<sup>38)</sup> 『보살계의소』는 대승계율에 대한 智顓(隋)와 灌頂(唐)의 주석이고, 『사분계본여석』은 사분율에 대한 弘贊(明)의 해석이다. 이 책들을 간행하게 된 배경이 臥雲信慧가 쓴 서문에 잘 나와 있다.

근세에 주인 없는 선박이 중국으로부터 와서 임자도에 표착하였는데 몇 권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대장경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분율’이 있었다. 이때 백암성종이 개발하고 간행할 뜻이 있어서 계과성능과 함께 인연을 모아 화엄경 및 여러 경론을 판각하였지만 이 경전에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니, 아! 백암과 계과의 나머지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 그 누군들 그들의 뜻과 같지 않겠는가마는 발을 싸매어 나서지 못하였다. 백여 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 거의 인멸되어 볼 수 없게 된다면 중국에서 보내준 고마운 뜻을 어찌 할 것인가. 이에 이름이 觀性이고 호가 雪月인 도인이 月巖子 旨間에게 일을 맡겼다. 지한은 스스로 삼백금을 보시하고 동심으로 협력하여 재물을 모으고 후세 억만 세에 유포하고자 하였다. (중략) 백암 당시에 직접 계과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승에서 월암자에게 그 일을 주어서 마치지 못한 일을 마치도록 한 것이 아니겠는가. 계과와 월암은 모두 학가산인이니, 아마도 학가산인이 함께 앞에서 큰 임무를 받아 어렵지 않게 마친 것이리라.<sup>39)</sup>

- “至丙寅(1686)春 栢庵和尚 得此全寶劄副 而眼目人天矣 星霜積而板刊字微 學者病焉.”  
 37) 서울대 규장각 소장 安邊 釋王寺 1752年 刊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編』 卷6末.  
 38) 안동 봉정사에서 1769년에 판각한 목판본 가운데 『佛說優婆塞五戒相經』과 『四分律七取大目抄』는 가흥장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 아니라 글자체를 바꾸거나 抄出한 가흥장의 改刊본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39) 安東 鳳停寺 1769年 刊 『四分戒本如釋』 『重刻四分律序』.

“近世有無主海舶 自支那而來 泊於荏子島 乃滿船大藏 不知幾許卷 而四分在其中矣 爾時也 有栢庵古老 開發而有鏤行之志 與桂坡能道人 召緣而刻大經 及諸經論而力未及於此 則栢桂之餘 慨其在茲矣 人誰不欲如其志而裹足不出者 至百有餘年之久 幾乎湮沒而不見 則其支那波送揄揚之志 何哉 有道人於此 觀性其名 雪月其號也 委事於月巖子旨間

백암성총과 계과성능이 합심하여 표류선에 있던 불서를 간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하였는데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나 월암자 旨閒이 사업을 완수하였다는 것이다. 이 불서 간행 사업이 봉정사에서 완수 될 수 있었던 것은 계과성능이 학가산인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과성능은 1695년에 가홍장 『화엄현담회현기』를 성공적으로 복각한 바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루지 못한 뜻을 이어서 지한이 복각을 완수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1769년에 봉정사에서 간행된 다른 가홍장의 복각들도 지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살계 의소』와 『기신론소필삭기』의 시주질을 찾아보니 “旨閒”이라는 인명이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가 이 세 책의 복각을 주도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기신론소필삭기』는 백암성총이 1695년에 회편하여 지리산 쌍계사에서 간행했던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의 저본이 되었던 책이다.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은 『大乘起信論疏』(4권, 唐 法藏 撰, 宗密 註)와 『起信論疏筆削記』(20권, 宋 子璿 錄)를 회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때에 송나라 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를 별도로 복각하였고, 또 그 서문을 함월해원이 쓰고 있다. 어떤 이유로 함월해원이 서문을 쓰게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그가 이미 가홍장을 복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한 등 간행 주체들이 그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함월해원이 복각했던 가홍장 역시 1681년 표류선의 것이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봉정사에서 복각한 가홍장은 1681년에 유입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함월해원의 서문을 보자.

신유년(1681)에 깨달음의 바다 바람이 불어서 부처님의 배가 정박하여 장수자 선이 쓴 『기신론소필삭기』가 무궁화의 고향을 비추었으니 『기신론소』와 달리 유통되던 것이다. 백암장로가 법장의 疏 아래 종밀의 注와 자선의 記를 달아 간행하여 후학들의 안목을 열었으니 다행함이 막대하였다. 그러나 글자가 작고 행수가 조밀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목판이 마멸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翫月弘 楓岳仁 虛明珠 幻宇胤 南溟鵬 聖巖允 翠松惠 龍城海 赤州禪 翠雲岸 등 여러 스님들이 재물을 모으고 장인을 불러 별도로 유통

間也自施金三百 而與之同心剝力 鳩財壽木 爲流後世億萬 (중략) 栢老當年親授桂坡 事猶未了 則得非冥授於月巖子終其未終也耶 桂與月俱是鶴駕山人也 胡爲乎 鶴之人同任大措於前 不難而終耶.”

되던 중국 책을 얻어 급하게 간행하였으니, 그 전래가 넓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불법을 지켜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하였던 것이리라.<sup>40)</sup>

백암성총이 간행한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의 인출이 잦은 탓에 판목의 글자 마멸이 심하였으므로 성총이 저본으로 했던 『기신론소필삭기』를 판각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은 전국 강원의 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인출되어 마멸이 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백암성총이 회편하여 간행한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을 복각하거나 개간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함월해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미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가 유통<sup>41)</sup>되고 있었으므로 백암성총이 회편한 책을 판각하기보다 자선의 『기신론소필삭기』를 복각하여 법장의 『대승기신론소』와 함께 보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후기 가흥장이 유입되고 복각된 내용들을 서술하였다. 가흥장이 처음 들어온 것은 표류선에 의한 우연적인 것이었지만 그 양이 매우 많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불교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다. 특히 복각을 통한 유통으로 불교 사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흥장의 복각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40) 安東 鳳停寺 1769年 刊『起信論疏筆削記』『重刊起信論筆削記序』.

“康熙辛酉 覺海宗風 吹泊慈航 長水之記 得映槿花之鄉 則疏外別行者也 栢庵長老 注記於疏下 而繡梓流傳 開後學之眼目 幸莫大焉 而字細行密 歲深板剝 難圖久遠 故翫月弘楓 岳仁 虛明珠 幻宇胤 南溟鵬 聖巖允 翠松惠 龍城海 赤州禪 翠雲岸 諸師鳩財命工 搜得別行唐本 而汲汲於刊行者 惟恐傳之不廣 其護法利人之心 勤且切矣.”

41) 당시 유통되던 法藏의 『大乘起信論疏』 판본으로는 1528년 金山 身安寺, 1616년 脩甌寺, 1636년 海南 大興寺, 1681년 谷城 泰安寺, 1681~82년 蔚山 雲興寺 刊本 등이 있었다.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중국 불서의 유입과 복각이 조선 불교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그리고 가홍장의 복각과 유통으로 인한 중국불교의 사상적 영향 역시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어떤 책이 복각되고 개간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그 복각본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총19종 242권의 가홍장 복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가홍장 복각본이 더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한 복각본은 필자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찾아내지 못한 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홍장을 저본으로 하여 글자를 바꾸거나 抄出한 改刊本도 있다. 아직 찾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5~6종이 된다. 개간본은 복각본보다 불교사상사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서지학적으로도 그 판각 연원과 특징을 통해 조선후기 사찰판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홍장의 개간본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원전]

- 『四經持驗記』(1686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1686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大明三藏法數』(1690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大方廣佛華嚴經疏鈔』(1690-1700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大方廣佛華嚴經疏鈔』(1775년,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 『靈澄二本對校』, 『大方廣佛華嚴經疏鈔』(1855년, 목판본, 해인사 정보박물관).
- 『禪源諸詮集都序』(1694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華嚴懸談會玄記』(1695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注華嚴法界觀門』(1713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담양 용흥사).
- 『因明入正理論解』(1714년, 목판본, 중앙승가대 도서관).
- 『歸元直指集』(1724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准提淨業』(1724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寶王三昧念佛直指』(1724년, 목판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 『百法論』(1750년, 목판본, 해인사 백련암).
- 『菩薩戒義疏』(1769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담양 용흥사).
- 『四分戒本如釋』(1769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起信論疏筆削記』(1769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維摩詰所說經直疏』(1854,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해인사 백련암).
- 『(明版)嘉興大藏經』.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
- 『韓國佛教全書』 第8冊, 第10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1681) 7月 9日 庚申(條).

### [단행본 및 논문]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 김종진. “1850년대 불서간행운동과 불교가사 - 남호영기를 중심으로.” 『한민족문  
화연구』 제14집(2004. 6). 109-140.
- 大藏會 編. 『大藏經-成立と變遷』. 京都: 百華苑, 1989.
- 李富華, 何梅 共著. 『漢文佛教大藏經研究』.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3.
- 서수정. “『禪源諸詮集都序』의 간행과 유통판본 고찰.” 『한국불교학』 제59집(2011.  
2). 197-235.
- 이종수.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종의 불서간행.” 『불교학연구』 제21호  
(2008. 12). 259-295.
- \_\_\_\_\_.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 三門修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 李智冠 編. 『韓國高僧碑文總集』.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書誌學研究 第56輯(2013. 12)

임기영. “안변 석왕사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54호(2013. 6).  
295-357.

조명제. “栢庵性聰의 佛典 편찬과 사상적 경향.” 『역사와 경계』 68(2008. 9). 89-114.

中鳴隆藏. 『明萬曆嘉興藏の出版とその影響』. 東京: 東北大學大學院, 2005.